

책 읽는 강북구, 어린이 위한 그림책 축제 연다

윤 이창희 기자 | 승인 2026.03.23 14:16

4월 1일~25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서 개최
이억배·김슬기·난주·이사랴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6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북 그림책



그림책 작가의 잔이 놓인

워크숍 원화전시



아트플레이



2026년 4월 1일(수) - 25일(토)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 갤러리



전시·체험

4월 1일(수) - 4월 25일(토)
10:00~17:00 월·월 휴관

공연·워크숍

매주 화,수,목요일 10:30
토요일 14:00

작가와의 만남

이억배
4월4일(토) 14:00

문의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2-994-8538

주최·주관 강북구 | 강북문화재단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 포스터.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은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에서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는 ‘새로 읽는 친구, 함께 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다. 4월 한 달간 그림책 작가 4인의 전시와 공연, 체험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이억배, 김슬기, 난주, 이사랏 작가의 그림책 원화 전시를 비롯해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특히 202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을 수상한 이억배 작가의 수상작 <오누이 이야기>, <한 장 한 장 그림책>과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인 김슬기 작가의 <모모와 토토 하트하트> 등 원화가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축제의 시작을 여는 4일에는 특별 프로그램 <이억배 작가와의 만남>이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진행된다. 한국 그림책의 거장 이억배 작가의 그림책 창작 과정에 관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워크숍도 이어진다. 7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그림책 작가들이 직접 선보이는 어린이 맞춤형 1인극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11일과 18일에는 공연 후 김슬기, 이사랏 작가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형 워크숍이 마련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창작 활동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축제가 그림책이 지닌 따뜻한 시선으로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관람 예약은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http://gbcf.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는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02-994-8538)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희 기자